제철 벌교꼬막의 유혹…보성서 펼쳐지는 '맛의 향연'

20-22일 천변서 '제22회 벌교꼬막축제'
'황금꼬막 잡아라' 등 무료 체험 행사
조정래 작가 태백산맥 북콘서트·사인회
미식존·야시장 등 먹거리·즐길거리 풍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벌교천변 일원에서 '벌교의 맛 꼬막으로 하나되는 즐거운 축제'를 주제로 제22회 벌교꼬막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단단한 껍질 속 도톰한 속살과 쫄깃한 식감, 은은한 단맛으로 사랑받는 대한민국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인 벌교꼬막을 낮부터 밤까지 축제장 곳곳에서 선보인다.

첫날인 20일에는 농악 길놀이와 벌교읍민의 날 기념식, 벌교꼬막축제·보성벌교갯벌축제 개막식이 열린다. 정오에는 '꼬막비빔밥 1천인분 만들기'로 제철 꼬막의 풍미를 나눈다. 오후 6시부터는 박서진·양지은·최유나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둘째 날에는 태백산맥문학관 기념행사와 꼬막노래자랑 예선·결선이 이어진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조정래 작가와 함께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를 둘러보는 문학기행도 마련된다.

또한 황금꼬막을 잡아라, 바퀴 달린 널배타기 대회를 비롯해 꼬막 까기와 무게 맞추기 등 무료 참여 행사도 운영된다. 오후 6시부터는 김용빈·박주희·문초희 등의 축하 공연과 불꽃쇼가 벌교의 밤을 밝힌다.

마지막 날에는 오후 2시 태백산맥문학관에서 조정래 작가와 함께하는 '태백산맥' 북콘서트와 사인회가 열린다. 같은 시각 주무대에서는 보성소리 공연과 창극 '이순신과 열선루'를 선보인다.


보성군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벌교천변 일원에서 제철 꼬막의 풍미를 맛 볼 수 있는 제22회 벌교꼬막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축제에서 선보이는 1천인분 꼬막비빔밥 만들기 모습. 〈보성군 제공〉

특히 올해 신규 프로그램인 '황금 꼬막 대소동', '벌교꼬막 미식존', '꼬막 야시장'이 진행된다. '황금 꼬막 대소동'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축제장에 숨겨진 황금 꼬막을 찾아 특별 경품을 받는 행사다.

'벌교꼬막 미식존'에서는 삶은 꼬막과 꼬막전·꼬막꼬치·꼬막탕수육·꼬막주먹밥 등 다양한 요리를 맛 볼 수 있으며 '꼬막 야시장'에서는 먹거리와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상설 체험장에서는 짱뚱어 장난감, 꼬막 모양 쫀득쿠키, 바다유리 조개 팔찌 등을 만들 수 있다. 꼬막 껍데기로 유리병 속 작은 정원을 꾸미거나 풍선아트를 즐기며 가족 나들이의 추억도 남길 수 있다.

한편, 벌교꼬막축제가 열리는 보성 벌교읍은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주무대로 대한민국 문학기행 1번지로 꼽힌다. 민족음악가 채동선, 홍암 나철 선생의 고향으로 알려진 예향의 고장이다.

/보성=임병언 기자

박종원 담양군수, 국비 확보·현안 해결 '잰걸음'

국회 방문 이광재 예결위원장 등 면담
농어촌 기본소득·달빛철도 지원 요청

박종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수가 2027년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찾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10일 담양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전날 국회를 방문해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정준호·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조배숙·신성범 의원 등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사진〉



주요 건의 사업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822억원) ▲국지도 60호선 창평-대덕 4차로 확장(496억원) ▲달빛 철도길 근대선교 복합공간 조성(35억원) ▲담양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143억원) ▲달빛철도 건설(4조5천158억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개선 ▲농어촌 보건소 신축 국비 지원 확대 등이다.

박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관련해 높은 고령화율과 청년인구 유출 등 농촌지역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군이 시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국지도 60호선 창평-대덕 구간의 조속한 확장과 함께 담양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국비 17억원 증액, 달빛 철도길 근대선교 복합공간 조성 사업 국비 6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확대와 농어촌 보건소 신축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전달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자 반도체·로봇·배터리 등 첨단산업 거점을 잇는 국가 균형발전의 주요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조기 착공을 요청했다.

박종원 담양군수는 "지역 발전과 군민 삶에 직결된 현안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당을 초월한 협력과 지속적인 국회 방문을 통해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고 주요 사업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손훈모 시장 '순천대 의대 건립 적금' 1호 가입

이병운 순천대 총장·최남휴 조합장 함께
2천30좌 모집…금리 최고 年 5.91% 적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10일 "손훈모 순천시장이 전날 국립순천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열린 '순천대 의대 건립 동행 특판 적금' 가입식에서 이병운 순천대 총장, 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과 함께 공동 1호 가입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판 적금은 순천농협이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신설 확정을 기념하고 의과대학 설립을 향한 시민들의 뜻과 기대를 함께 나누기 위해 출시한 금융 상품이다.

특판 적금은 2천30좌 모집 완료 시까지 판매되며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다. 월 납입액은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로 금리는 최저 연 5.35%에서 최고 연 5.91%까지 적용된다.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순천농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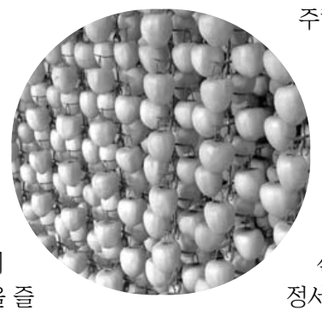
손훈모 순천시장은 "순천대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기념하는 특판 적금에 첫 가입자로 함께 하게 돼 뜻 깊다"며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백상현 기자

당도·식감 으뜸 '광양 곶감' 한자리에

13일부터 사흘간 '광양대봉감축제'
힐링 코스 백학동 감꽃길 진풍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높은 당도와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광양 곶감(사진)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광양대봉감축제'를 개최한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상면 일원에서 '맛있는 감! 광양 대봉감!'을 슬로건으로 제4회 광양대봉감축제를 진행한다.

축제에서는 대봉감 즉석 경매와 먹기 대회, 가요제, 공연 등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행사가 이어진다.

감의 달콤한 맛을 즐겼다면 늦가을 정취를 만날 차례다. 축제장에서 어치계곡까지 이어지는 약 16㎞ 구간은 백운산의 깊은 산세와 계곡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드라이브 코스다. 내회교(橋) 인근에 차를 세우고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물이 어우러진 어치생태탐방로를 걸으면 구시폭포와 오로대 등 자연이 빚은 숨은 명소가 기다린다.

한가롭게 걷고 싶다면 백운산둘레길 제4코스 '백학동 감꽃길'이 있다. 광양매화마을에서 백학동 마을까지 이어지는 7.2㎞ 구간으로 걷는 데 약 2시간30분이 걸린다. 곳곳에 감이 주렁주렁 열린 풍경을 감상하며 잔잔한 수어호와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억불봉의 산세를 함께 만난다.

광양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불암산성과 농부네텃밭 도서관도 빼놓을 수 없다. 옛 산성의 흔적을 살펴보고 농촌 정서와 책, 자연이 어우러진 이색 공간을 둘러보며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

이현주 관광과장은 "광양 가을은 제철 특산물의 풍미와 백운산의 수려한 자연, 지역 곳곳에 깃든 역사·문화를 함께 만날 수 있어 매력적"이라며 "대봉감축제와 함께 백학동 감꽃길, 어치계곡, 불암산성 등도 둘러보며 풍성한 가을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백상현 기자

장성군, 황룡강 봄꽃 파종 작업 시작

방문객 동선·개화 시기 등 고려
토양 기초 작업 이후 월동 관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은 10일 "내년 봄 황룡강 초화류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종자 파종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성 계획은 황룡강 방문객의 동선을 고려해 시각적 몰입도를 향상시키고 구역 별로 차별화된 연출을 선보이는 데 중점을 뒀다.

장성군 황룡강사업소는 이달부터 황룡강 주변 산책로와 둔치, 황미르랜드 등 주요 거점 구간을 중심으로 초화류 파종을 진행하고 있다.

사람들의 발길이 집중되는 보행 동선 구간에는 붉은빛 꽃양귀비와 순백의 안개초, 황금빛 금영화를 집중 조성한다. 화려함과 부드러운 느낌의 색채가 잘 어우러지게 구성해 시각적 만족도를 높인다.

코키아와 아스타가 자라났던 구간은 꽃이 피는 시기가 길고 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 다년생 초화류 '가우라' 대단지로 전환한다. 초화류 교체 비용과 행정력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봄부터 가을까지 은은한 '다년초 물결'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꽃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장성군은 한파에 대비해 이달까지 경운, 정지, 거름주기 등 토양 기초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꽃씨를 파종한 다음에는 가는 흙으로 토양을 덮는 등 월동 관리를 이어간다.

11월까지 파종을 마친 황룡강 봄꽃들은 겨우내 땅 속에서 생명력을 키운 뒤 내년 3월께 싹을 틔우게 된다. 본격적인 개화 시기는 5월께로 예상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꽃길에 맞춰 파종한 꽃양귀비, 안개초, 금영화가 내년 봄 황룡강을 찾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풍경을 선물할 것"이라며 "월동 관리를 통해 사계절 사랑받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여수교육청 '해양·창업 진로 페스타' 호응

80여개 부스 직업 체험 프로그램 다채
스마트물류드론·3D펜디자이너 인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여수교육지원청은 10일 "전날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2026 여수 해양·창업 진로 페스타'를 열고 이틀 간의 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첫날 초·중·고등학교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민 등 3천여명이 참여했으며 개막식 이후 학생들은 도서관 안팎에 마련된 80여개 부스를 돌며 해양·창업 분야 직업을 체험했다.

스마트 해양 물류 드론과 해양 3D펜 디자이너, 해양 안전 체험관 등 많은 부스에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해양치유 간호 체험과 미디어크리에이터 체험 부스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체험하는 모습들이 이어졌다. 대학 입시·진학 상담 부스를 찾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도 눈에 띄었다.

페스타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 한 학생은 "책으로만 보던 해양 관련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보니 훨씬 가깝게 느껴졌다"며 "해양 네일아트 창업 체험이 가장 재미있었고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영신 여수교육장은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마음껏 보고 체험하며 자신의 꿈을 그려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흥 회진항·동두항 '어촌뉴딜' 공모 선정

총 388억원 확보…낙후 어항 현대화
지속가능 어촌 정주 기반 마련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소재 회진항과 동두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뉴딜 3.0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88억원을 확보했다.

10일 장흥군에 따르면 회진항은 어촌경제도약형, 동두항은 어촌회복형에 선정돼 각각 288억원, 1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회진항은 스마트 선박수리센터, 수산물 판매장, 해조류 융복합센터, 바다누림 컴플렉스 등 어업기반 시설과 해양 레저·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수산업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해양경제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투자와 연계해 새로운 청년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동두항은 수산물 로컬 거점, 임대주택, 태양광 시설, 어항 정비 등을 추진해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어촌 정주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어촌뉴딜3.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의 생활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해수부의 역점 공모사업이다. 사업 특성에 따라 어촌경제도약형과 어촌회복형으로 나눠 추진된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회진항은 어촌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동두항은 주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활력 있는 어촌으로 만들어 새로운 해양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장흥=노형록 기자